

	<h1>설명자료</h1> <p>2020. 7. 23.(목) 배포</p>	
---	---	--

**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의 질 개선 계기로 삼아  
교원수급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.**

- 언론사명 / 보도일시 : 한국경제(배태웅 기자), 한국일보(이윤주 기자) 등 / 2020. 7. 23. (목)
- 제목 : 공립 초·중·고 교원 채용 2023년까지 1,300명 줄인다  
초·중등 교원 선발 700명 줄인다 등

**<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>**

- 2020년 7월 23일 발표한 <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 정책 추진계획>에 제시된 중등교원 신규채용 규모는 2018년 발표한 수급계획을 유지한 것입니다.
  - ※ 중등교원 신규채용규모를 2020년 대비 2024년까지 최대 650명 감축하는 것은 2018년에 기 발표된 사항
- 한편, 2030년 초등 학령인구가 242만명이 아닌 180만명으로 추계되어 학령인구 감소폭이 25%에 달함에 따라, 불가피하게 초등 신규채용 규모를 2018년 계획보다 감축하되, 기존 계획에 대한 신뢰 보호 및 코로나 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감소폭을 최소화 하였습니다.
  - ※ 초등교원 신규 채용규모는 2018년에는 2020년 대비 2024년까지 최대 410명 감축 계획이었으나, 이번에는 학령인구 감소를 감안하여 최대 916명 감축으로 변경

- 나아가,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미래교육 전환의 기회로 삼기 위해 “학급당 학생 수” 등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에 따라 2021년까지 새로운 교원수급 전망 모델을 만들어 2023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.

